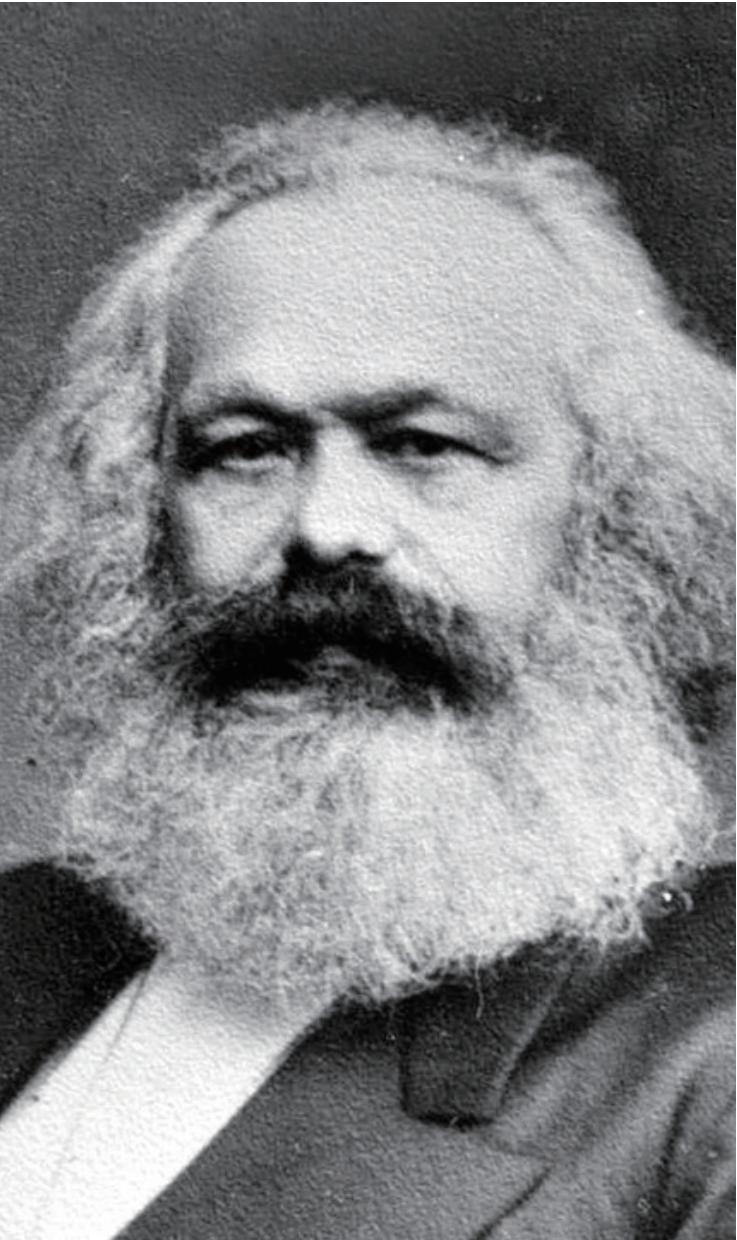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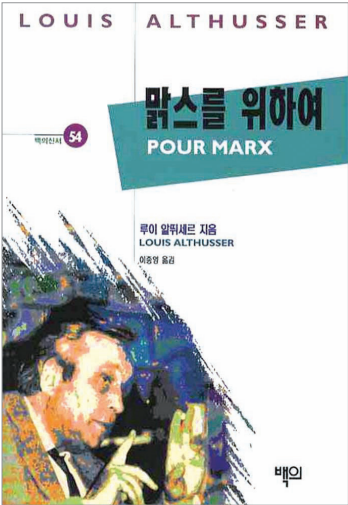
8 기획-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 ⑪ 루이 알튀세『맑스를 위하여』



알튀세(우)는 맑스(좌)의 이론과 사상의 유용성을 입증했다.



(사진=Wikimedia commons, Store norske leksikon)



루이 알튀세의 『맑스를 위하여』

결정’(3장) 개념 역시 알튀세 논의의 핵심인데, 이 용어는 프로이트가 의식·전의식·무의식을 공간적 은유로 설명하는 데서 나왔다. 프로이트는 의식·전의식·무의식이 가옥의 방과 같이 벽을 통해 구분돼 있으면서도 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알튀세는 정치·경제·이데올로기 심급으로 이뤄진 사회구성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 심급의 상대적 독립성과 연관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전통적 맑스주의에서 상부구조의 한 영역이던 이데올로기가 정치와 경제 심급과 동등하게 다뤄짐에 따라, 문화연구에서는 이데올로기 비판에 관한 논의(이미지, 상징, 기호 분석)가 활발해졌다.

『맑스를 위하여』를 통해 맑스주의의 과학성을 입증하려 한 알튀세는 맑스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그 이론과 사상의 유용성을 다시금 입증했다. 1990년대에 발생한 사회주의권의 붕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 자유화 물결, 대중 소비·대중문화의 폭발적 증가는 더 이상 한국 사회를 민중·민족·민주에 기초한 프레임으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속에서 알튀세는 맑스를 버리지 않고도 사회변혁과 진보를 상상하게 했다. 이후 알튀세는 자기정정을 통해 맑스주의에서 이데올로기(정치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맑스주의의 모순에 착목해 맑스주의의 전화를 시도하는 행보를 보인다. 이는 맑스주의의 불완전성이 아닌, 현실의 부단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맑스주의자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보여준 존경할만한 행적이라 하겠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전환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코로나19라는 질병 재난이 더해지면서 파국의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맑스로 돌아가자’라며 맑스를 새롭게 재해석한 알튀세 진중한 행보를 따라 코로나19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맑스가 펼쳐놓은 사상의 바다를 향해보는 것은 어떨까?

탈맑스 시대의 ‘탈’탈맑스주의자, 알튀세



김 성 일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몇 해 전 세간의 인기를 끌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는 1990년대 한국 사회를 소환하며 당시 대중문화에 ‘복고 열풍’을 촉발했다. ‘1990년대’가 유행의 블루칩인 것은 영화 〈건축학개론〉(2012년)과 예능프로 〈무한도전〉의 ‘토토가’ 특집(2015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그만큼 ‘1990년대’는 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시절로 기억되는 듯하다. 필자에게도 1990년대는 특별하다. 대학원 입학(1995년)은 대학 입학만큼이나 신세계를 맞보게 했으니 말이다. 대학원이 열어젖힌 신세계는 학문(소박하게는 공부)의 길로 인도했는데, 지식의 바다를 거침없이 항해하게 이끈 이는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실천가인

알튀세였다. 주지하듯, 1980년대 한국의 진보 진영은 맑스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 맑스를 비판하거나 거리를 두려 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그에 따른 대안 사회의 부재, 즉 사회변혁운동의 이념 상실에 있다. 기존 사회운동의 전략·전술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요청된 바, 진보 진영은 저마다의 진단 속에서 부산한 이합집산을 이어갔다. 바야흐로 1990년대의 서막과 피날레는 사회운동의 변신을 모색한 발자취로 장식했다. 알튀세는 이러한 모색 과정에서 새로운, 아니 획기적인 이론적 통찰력을 제공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왜냐하면 정신분석학과 기호학 같은 비(非)맑스적 전통에서 맑스를 재발견하려 한 그의 이론적 우회 전략은 당시 한국 사회운동에 요구된 변신의 과제를 풀게 할 이론적 지평을 더없이 확장하게 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문화연구(진영)에 있어 1990년대 중반과

후반 푸코와 들뢰즈 이론의 탐색은 알튀세가 열어젖힌 이론적 지평의 확장에 힘입은 바 크다. 『맑스를 위하여』(1965년)는 『자본론을 읽는다』(1966년)와 더불어 알튀세의 초기 사상이 담긴 대표적 저서이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알튀세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이 초래한 프랑스 이론·정치정세에 대한 이론적 개입으로 본 저서를 집필했다. 즉, 스탈린의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는 맑스주의를 인간주의 혹은 우익적 관념론으로 치환해 헤겔적 변증법으로 환원시킨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그는 역사과학으로서의 맑스주의를 주창한다. 즉, 맑스주의는 소련에서 인민을 지배하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 혹은 프랑스와 서구 공산주의 진영이 보인 휴머니즘(주의주의)으로의 경도(傾度)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맑스주의가 진리일 수 있는 것은 ‘과학’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알튀세는 맑스의 변신,

다시 말해 청년 맑스에게서 나타난 소외론적 문제설정(2장))이 『1844년 수고』(5장) 이후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테제』와 『독일 이데올로기』를 경유하며 ‘과학’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새로운 규정(6장), 즉 이론의 이론(메타이론) 혹은 과학의 과학(메타과학)인 이유와 근거를 찾는다. 위의 논의에서 알튀세만의 독창성이 있다면, 그것은 맑스주의에 없는 개념을 비맑스적 전통에서 찾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맑스 사상의 변천을 ‘인식론적 단절’로 설명하는데, 이 용어는 바슐라르의 저서 『과학적 정신의 형성』에서 빌렸다. 과학적 인식과 개념의 발전은 전(前)단계의 모든 준거 틀로부터 완전히 단절함으로써 가능한데, 이러한 총체적인 사유를 알튀세는 ‘문제설정’이라는 용어로 정교화하면서 맑스의 청년기·성숙기·완숙기의 변화(서문, 1장)를 설명한다. 아울러 ‘모순의 중층